

20세기 전반기 회화를 모티브로 한 현대의상디자인 - 한국적인 소재와 실루엣을 중심으로 -

전 현 경 · 송 미 령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형예술은 의상디자인 창작에 있어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 초부터 Paul Poiret를 선두로 하여 디자이너들은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벌여왔고 이러한 공동 작업은 대중매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상업적인 이익을 가져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추상미술로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한 20세기 여러 미술 사조들은 대상의 형태 재현을 벗어나 자기표현이 강조되는 조형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롭고 개성화 된 의상으로의 혁신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Art to wear와 달리 캐주얼 웨어로 회화의 조형성을 표현해 본 것에 의의를 두었다. 특히 20세기 전반기 회화를 모티브로 한국적 소재와 실루엣을 복식에 응용한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전통미를 나타내는 캐주얼웨어 5점을 제작하였는데 국제화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자국의 전통성을 활용하는 의상 개발로 세계 시장의 확대를 모색하고 패션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20세기 전반기 회화를 중심으로 각 미술 사조에 나타난 대표적인 화가들의 작품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 시대 의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현대의상에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관계를 알아보고 현대 캐주얼웨어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적 모티브를 가미한 의상 제작을 시도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조형 요소로는 화려한 색채와 단순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등을 노출하는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야수주의 회화의 원색조의 칼라와 보색대비에 의한 강렬한 색채는 의상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평면적인 재단으로 형태의 단순미를 나타내었다.

위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추상회화로의 과도기적 예술양식인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의 다양한 표현방법 및 표현요소는 20세기초의 새로운 예술해방에 대한 분명한 제시로서 복식의 새로운 조형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했고, 그 이념은 복식조형의 혁신과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의 영감을 주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시대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둘째, 20세기 전반기 회화의 색채와 형태의 단순성은 기능적인 복식의 모티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으며 독특하고 간결한 현대미를 표출하게 하였다.

셋째,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한국적 소재와 실루엣의 활용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고취시켜 국제무대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한국 복식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창조적 영역임을 인식 할 수 있었다.

넷째,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 패션을 알아보고, 현대 패션의 흐름을 캐주얼 웨어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오늘날 예술의 미적 표현 기법의 기능성, 독창성이 미래의 패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회화들의 기본이념과 표현방법 및 표현요소는 동시대는 물론이고 현재의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에서 영감을 받은 캐주얼 웨어에 한국 적인 소재와 실루엣을 넣은 의상제작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이미지 창출로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의상으로 개발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적"이라는 고유한 테마를 갖더라도 디자이너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단순히 한국적인 면을 보여 주는 단계에 머물면서 한 단계 발전한 차원으로 끌어올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feed back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 한국 패션의 장기적인 시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 감각이 바탕이 된 한국적인 디자인과 한국적 요소의 다양한 활용방법이 더욱 연구되기를 바란다.